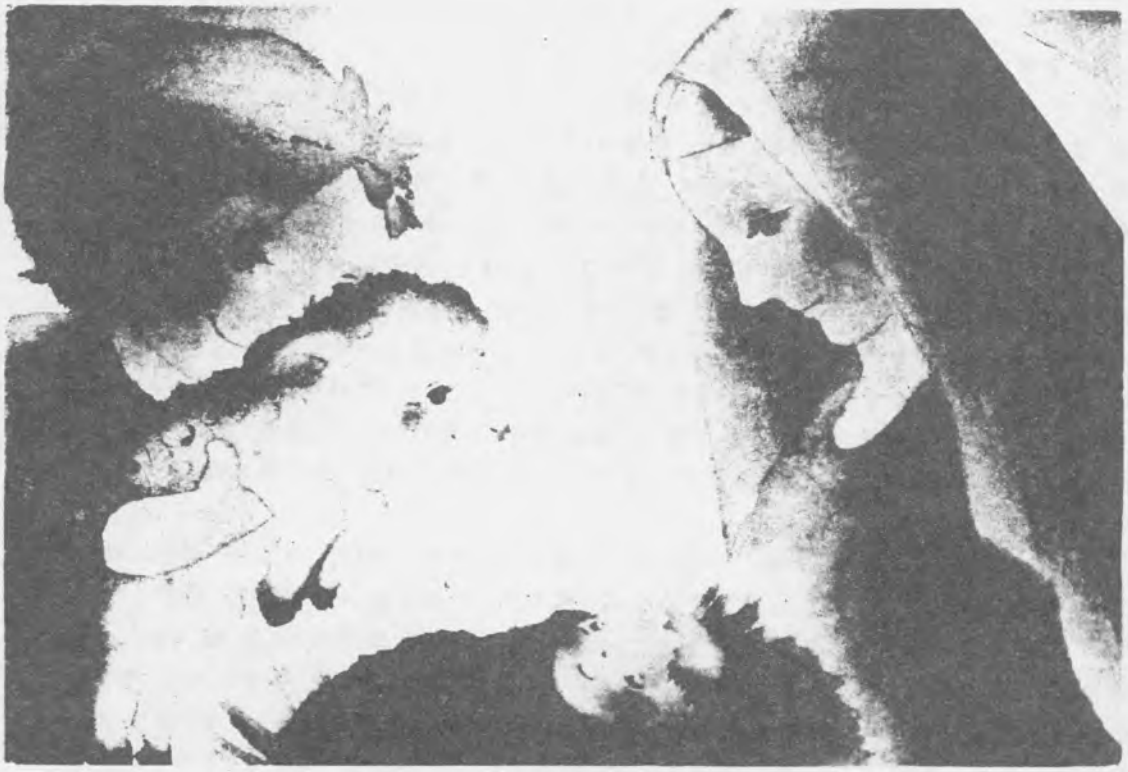
中 國 語 文 宣 教 會 報

창간호
1989. 12



순 서

1. 발 간 사
2. 창립예배시 설교말씀요지
3. 제1차 정기세미나(주제:사회주의 초급단계에서의 종교관)
4. 예산사용 내용
5. 후원상황
6. 각부 모임보고 및 안내
7. 회원동정
8. 알림사항
9. 동계중국어 강좌 안내 및 수강접수, 마감

발 간 사

박 성 주(중국어문선교회 대표)

중국어문선교회의 첫 번 째 회보가 나오게 됨을 감사드리며, 이 기회를 빌어 몇 가지 소감말씀을 드림으로 발간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지난 해 여름부터 몇몇 뜻을 같이 하는 형제들과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던 중, 일년 남짓 지난 금년 10월 30일에는 마침내 중국어문선교회를 발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중국어문과 중국학을 전공하고 있는 이들이 중심이 되어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 쓰임받을 일이 반드시 있으리라는 믿음으로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중국대륙의 문호가 조금씩 열리고 중국선교에 대한 한국교회의 사명이 차츰 인식되면서 소명을 받은 헌신자들이 적지 않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일부 선교단체 또는 교회들에 의하여 중국선교 내지는 공산권선교의 필요성이 빈번히 제기되어 일반 그리스도인들조차 그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중국사정이나 선교정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중국어의 습득이라는 기본적 조건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뜨거운 열정만으로는 결코 중국인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중국어문선교회가 담당할 사역은 바로 중국선교에 부르심을 입은 이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필요한 일들을 찾아서 이를 지원하고 돕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원사업도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역시 중국선교사역의 중요한 일환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중국기독교의 배경이나 역사, 현황 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자료나 책자를 번역, 출판함으로써 중국선교를 준비하는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입니다. 중국과 중국인을 이해하기 위하여 중국문화전반에 대하여 소개하는 일도 우리가 해야할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선교사역에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중국어의 교육훈련은 본 선교회의 가장 중점적인 사업의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빼놓을 수 없는 긴요한 일로서 중국선교의 제반 문제점들을 깊이있게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전문연구인력의 양성도 꾸준히 추진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저희들로서는 이러한 많은 일들 앞에서 심히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과 동참에 힘입어 겸손히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를 지켜나갈 때 주님의 도우심으로 머지않아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창립예배 때 보여주신 여러분들의 열기와 성원은 참으로 감격적이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치 못한 분들의 기도와 격려 또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권능에 의지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힘껏 자신의 달란트를 사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고, 자주자주 질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다음은 지난 10월 30일에 있었던 중국어문선교회 창립예배시 설교의 말씀 이다.

"하나님의 큰 일"

그래대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사도행전 2:11)

방 지 일 목사(중국어문선교회 고문, 영등포교회 원로목사)

본문 말씀에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 곳에서 온 그들이 하나님이 크신 일을 다같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여러가지 방언으로 말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들의 영혼이 각각 예수님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로 여려가지 방언과 능력의 은사를 받으면 서로 주고 받으며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여러가지 방언과 능력의 은사를 받은 것으로 자기 만족에 그친다면 곤란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란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천하보다 귀한 한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천국에 있는 사람은 가장 작은 자라도 요한과 같다고 했습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구속하심을 믿어 하나님의 공효을 입은 것입니다.

오늘 뜻있는 주의 사람들이 중국어문선교회를 조직하고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큰일을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그 준비로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한 생명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의 사업처럼 복음의 사역을 생각한다면 그 근본의 의의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한 생명에게 성령의 교통하심을 믿게 하여 그가 죄를 뉘우치게 해야 합니다.

선교회라는 조직체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가 시키는대로 순종하여 큰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로 모인 신앙의 동지들에게 하나님의 기쁘하신 뜻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社會主義 初級段階에서의 종교관

于 心 華 목사 (아세아연합신학원 교수)

* 이 글은 지난 11월 27일에 가졌던 중국어문선교회의 첫번째 정기세미나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1.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이란?

중국에서는 공산주의 실현을 두 단계로 설정하고 있다. 그 첫째 단계는 공산주의 초급단계로서의 사회주의사회이고 둘째단계는 사회주의의 고급단계로서의 공산주의사회이다. 즉 처음이 사회주의사회이고 그 다음이 공산주의사회라는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사회주의로 이행하기 전의 과도기단계(1949-1978)를 거쳐서 사회주의의 초급단계에 들어섰으며 그 후의 단계를 사회주의의 발달단계로 설정하고 있다.

2.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의 형성과정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이 대두된 시기는 1981년 6월 북경에서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1기 6中全會이다. 거기에서 《關於建國以來黨的若於歷史問題決議》가 통과됨으로서 시작되었다. 이어 1982년 북경에서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2차 全人大에서 호요방의 《全面開創社會主義現代化建設的新局面》이라는 구호제창으로 확인되었다. 1986년 9월 중국공산당 제12기 6中全會에서 《中共中央關於社會主義精神文明建設指導方針的決議》가 통과되면서, 중국이 사회주의 초급단계에 와 있다는 지적들이 나왔다. 1987년 10월25일 제13차 全人大에서 있은 조자양의 《政治工作報告》에서는 사회주의 초급단계의 이론에 대해 분명하고 체계적인 언급이 있었다.

3.사회주의 초급단계에서의 목표

사회주의 초급단계는 '1개의 중심, 2개의 기본점'을 목표로 한다. 1개의 중심이란 경제건설이라는 당면목표이며, 2개의 기본점이란 경제건설을 이룩하기 위한 방침을 말하는 것으로 4대견지와 개혁개방의 견지이다. 4대견지는 사회주의사회의 견지, 중국공산당의 영도견지, 막스레닌주의, 모사상의 견지, 르폴레타리아독재의 견지를 말한다.

4. 사회주의 초급단계 설정의 이유

중국사회가 이미 사회주의 초급단계에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사회주의 이전 단계인 자본주의 단계보다 낙후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유물사관의 이론적 모순을 해결해야 했고 중국의 현실에서 부딪치는 모순을 해결하여야 했기 때문에 사회주의 초급단계를 설정하였다. 중국공산당은 그들의 사회가 자본주의사회에서 사회주의사회로 가는 과도기를 거쳐서 이후의 단계로 넘어왔다고 주장한다. 현 중국의 사회는 발달된 단계는 아니다. 즉 중국은 이미 사회주의사회이지만 정치, 사상, 문화적으로 발전할 여지가 남아있다. 현 사회의 모순과 갈등은 중국사회가 발전된 사회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있을 수 있다. 중국의 사회주의는 완전하지 못하며 사회주의 초급단계에서는 아직도 성숙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정치, 경제, 정신면에서 구사회의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다.

5. 사회주의 초급단계와 종교와의 관계

사회주의 초급단계는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생산관계가 확립되어 있으나 온전치는 못하다. 그리하여 생산력 수준이 낮고 발전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여러가지 불합리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정치면에서는 사회주의 정치제도가 이미 수립되었으나 민주정치는 아직 온전하지 못하다. 착취계급은 이미 사라졌지만 계급투쟁은 일정한 범위내에서 오랫동안 존재할 것이다. 사상문화적인 면에서 사회주의 정신문명이 이미 수립되었고 지도적인 위치에 서 있지만 매우 불온전하고 소수만이 공산주의 세계관을 갖고 있으며 많은 군중은 사상 도덕적인 면에서 차이가 크다. 이런 이유로 사회주의 초급단계의 강조점은 사회주의의 현대화에 있다. 이 사회주의 현대화를 위해 신자, 불신자를 경제건설에 매진토록 하려는 의미에서 종교를 인정해 주고 있는 것이다.

6.사회주의 초급단계에서의 종교존재의 이유

유물사관에 의하면 계급사회가 되면서 피지배계급이 착취와 억압을 당함으로 인하여 종교가 발생했다고 보는데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이미 계급적 모순이나 착취계급은 사라졌다. 그런데도 종교가 존재하는 것은 객관적 사회원인과 주관적 심리원인으로 설명된다. 즉 (1)구시대 의식의 찌꺼기이며, (2)물질문명이나 정신문명의 수립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며, (3)사회주의사회에도 천재지변이나 인화가 있어 사람들이 고통을 받기 때문이며, (4)이 시기에도 일정범위의 계급투쟁이 상존하고 있고 복잡한 국제환경 등으로 인해서 종교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7. 중국의 종교관련법규

1982년도 헌법

제2장 34절 공민(만 18세 이상되는 국민)은 민족, 성별, 직업, 가정출신, 종교신앙, 교육정도, 재산상황, 거주기한에 의한 차별없이 공민으로서의 권리를 가진다.

35절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종교사상의 자유가 있다.

① 어떠한 국가기관이니 사회단체도 공민이 종교를 신앙하도록 강제하거나 신앙하지 않도록 강제할 수 없다. 또 신, 불신 여부에 따라 경시받지 않는다.

② 국가는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보호한다. 어떠한 사람도 종교를 이용하여 사회질서를 파괴하거나 공민의 신체건강을 손상하거나 국가교육제도의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③ 종교단체와 종교하무는 외국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 이 헌법에는 '75와 '78년도 헌법에 수록되어 있던 종교를 신앙하지 않을 자유와 무신론을 선전할 자유가 있다는 내용이 삭제되었다.

8. 중국의 종교에 대한 인식과 종교정책

공민은 종교의 자유가 있으나 공산당원은 종교의 자유가 없다. 종교는 학교교육, 사회공공교육, 사법, 행정에 대한 간섭을 할 수 없다. 18세 이하의 국민에게는 신앙을 갖도록 하는 자유가 없다. 문혁시기의 종교말살정책을 비판하며 교유과 설득, 무신론교육과 과학교육을 통해서 종교가 소멸하게 해야 하며 종교에 대한 방임도 오류이지만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종교의 작용이 소극적이기 때문에 온건한 방법으로 종교가 소멸하게 해야 한다. 또 종교는 사회주의 사회가 고도로 발전하게 되면 자연히 소멸하게 될 것이므로 사회주의 초급단계에서는 경제건설에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종교의 자유를 허락한다. 이런 이유로 3정정책(정해진 장소, 시간, 인원)을 엄수케 하며 가정교회를 인정하지 않는다.

〈질의와 응답〉

문 : 종교는 없어져야 한다는 중국당국의 입장하에서 천안문사태 이후 중국선교의 전망은?

답 : 4개현대화라는 목표(주요모순)인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서 종교인과 계속 손을 잡을 것이므로 종교(선교)는 앞으로도 허용될 것이다.

문 : 교회의 사회참여와 관련해서 중국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중국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답 : 구령에 더욱 힘을 기울여 크리스챤의 숫자가 증가하면 당연히 민주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문 : 개방정책과 종교의 개방을 긴밀히 연결시켜 생각할 수 있겠는가?

답 : 그들은 사회주의가 진전되면 종교가 소멸한다고 보지만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개방이 되면 오히려 종교가 성하게 될 것이고 민주화도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 : '사회주의 초급단계에서의 종교관'이란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소개해 주십시오.

답 : 「中國社會主義時期的宗教問題」, 중국사회과학연구소
「宗教與無神論」, 복건인민출판사
「十九號文件」, 1985년

문 : 기독교와 여타종교에 대한 중국당국의 인식상에 차이점은 없는가?

답 : 역사적인 근거하에 기독교가 특히 제국주의 첨병이라는 의심이 많다.

예 산 사 용 내 역

수 입		지 출	
회 비 (2 - 9월분)	85,000	인 건 비	200,000
		강사료 50,000	
		간사급여 150,000	
		인 쇄 비	283,000
		자료구입비(국내, 국외)	189,700
선교헌금(6 - 9월분)	240,000	우 편 료	138,860
		친교비(8 - 11월)	140,060
		보급재료	110,000
		사 무 비	72,000
후원헌금(10월 - 11월분)	2,347,000	연 료 비	15,700
		구 독 료	2,500
		임 대 료	300,000
		전 화 료	250,400
찬 조 금(10월)	100,000	운임(이사)비	34,500
		식 비	15,000
		선 물 비(한성교회 꽃증정)	15,000
		현금잔액	1,015,280
계	2,782,000	계	2,782,000

후 원 상 황

9월 : 남현정, 박성주, 이동화 (9.22 - 9.30)

10월 : 이동화, 이홍자, 안병국, 빈미정, 남현정, 송이숙, 김말순, 선우석호, 박호, 정종용, 박지석(10. 1 - 10. 31)

11월 : 박성주, 박지석, 박동화, 정인숙, 박영헌, 이의순, 이지순, 서 진, 김종덕, 김일봉, 김한성, HOPE, 서덕이, 김은숙, 서옥희, 백정숙, 박혜성, 빈미정, 김승원, 박혜영, 박정숙, 운연자, 이의선, 김한성, 박재현, 이금복, 김영혜, 이성철, 박선남, 이영구, 박성주, 우심화, 서기원, 김만섭, 박지화 박혜영, 유계준, 박지석, 박동화, 이지순, 서 진, 용전동 (11. 1 - 11. 30)

헌물 : 박동화 (컴퓨터, 작업대 2개, 난로 1개, 의자 10개)

* 송금온라인 번호 *

국민은행	008 - 01 - 0454 - 178
상업은행	104 - 05 - 106251
조흥은행	325 - 1 - 062234
중소기업은행	002 - 01 - 0154 - 683
우 체 국	010892 - 002775
예 금 주	중국어문선교회

각부 모임보고 및 안내

연 구 부 : 11월 24일(金), 12월 8일(金)에 부별 모임을 갖고 각각 작업분담과 자체 세미나에 대하여 의논하였습니다. 다음 모임은 ~~12월~~ 22일(金) 오후 7시에 본선교회 세미나실에서 가집니다.

교 육 부 : 12월 9일(土) 오후 3시 부별 모임을 갖고 교육부 자체훈련 방법에 대하여 의논하였습니다. 정기모임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사랑의 교회 소망관 408호에서 가집니다.

번역출판부 : 11월 23일(木), 12월 7일(木)에 부별 모임을 갖고 각각 번역작업분담과 용어통일작업에 관하여 의논하였습니다. 다음 모임은 12월 21일(木) 오후 7시, 본선교회 세미나실에서 가집니다.

정기간행부 : 12월 2일(土)에 부별 모임을 갖고 편집방향과 업무분담에 관하여 의논하였습니다. 다음 모임은 12월 일 본선교회 세미나실에서 가집니다.

총 무 부 : 12월 1일(金)에 본선교회 사무실을 이전하고 12월 3일(日)에 첫모임을 갖었습니다. 다음 모임은 12월 18일(月) 오후 7시 본선교회 사무실에서 가집니다.

회 원 동 정

1. 본선교회 고문이신 방지일 목사님은 약 2개월 체류예정으로 11월 중순 싱가포르로 출국하셨습니다.

알 림 사 항

1. 본선교회 창립총회 및 예배가 11월 30일 경희대 시내한방병원 3층 대회의실에서 방지일 고문 목사님, 한성교회 유전명 목사님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2. 그동안 한국방송통신대학에 박성주 교수님의 연구실에서 더부살이 하던 본선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종로2가 YMCA 뒷편 명휘원빌딩 3층에 독자적인 사무실과 세미나실을 얻어서 12월 1일에 이사를 하고 이어서 12월 11일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입주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보증금 전액과 월 임대료중 상당액수를 한 독지가가 찬조하시고 저희들은 월 30만원만 내면 되는데 그중 월 16만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3. 제1차 정기세미나가 11월 27일(월) 경희대 시내한방병원 3층에서 아세아연합신학원(ACTS) 교수이신 于心華 목사님을 모시고 "사회주의 초급단계에서의 종교관"이란 제목으로 개최되었습니다.

4. 제2차 정기세미나의 일자와 장소를 바꾸어 12월 26일(화) 오후 7시에 종로2가 YMCA 뒷편 명휘원빌딩 3층 본선교회 세미나실에서 철원 길병원 원장이신 김상현 선생님(할렐루야교회 집사)을 모시고 "중국선교에 있어서의 의료인의 역할" (부제:중국의 병원선교 가능성)이라는 제목으로 개최되오니 착오없이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5. 본선교회 동계 중국어 강좌가 신년 1월부터 2월까지 초급과 중급으로 나누어 개설되오니 관심있는 분은 별도 안내문을 참조하시고 본선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6. 11월 30일 현재 회원가입 상황은 63명이고 후원상황은 53명에 58만3천원입니다.

동계 중국어 강좌 안내

본 선교회에서는 중국선교를 위해 준비하시는 여러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초급반과 중급반을 개설코자 하오니 뜻있는 형제 자매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다 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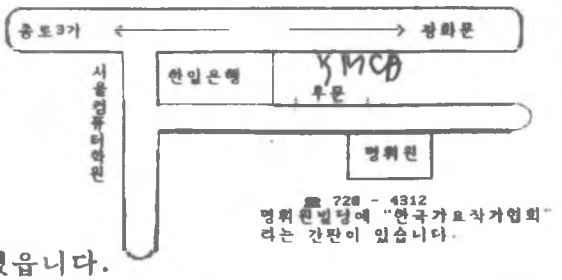
1. 초급과정

대상	각 선교회,신학교및 대학교의 중국선교 지망자 직장인으로서 중국선교를 준비하는자.
내용	발음과 기본문형,기초회화,찬송가
교재	한국방송통신대학 초급중국어 교재와 비디오테이프
기간	1990.1.5-2.28 8주(주 2회,화요일과 금요일,19:00-21:00)
장소	중국어문선교회 강의실(종로2가 명휘원 3층 301호)
수강인원	20명(선착순)
수강료	4만원
강사	이 동 화(서울대 대학원 중문과 석사)
개강일	1990.1.5

2.중급과정

대상	각 선교회,교회,신학교및대학교의 중국선교 지망자 직장인으로서 중국선교를 준비하는자 중국어의 초급과정을 마친자
내용	중국의 역사,문화,지리,정치등 문화전반에 대한 소개
교재	中國 文化 貳拾 講
기간	1990.1.4-2.28 8주(주2회,월요일과 목요일,19:00-21:00)
장소	중국어문선교회 강의실(종로2가 명휘원 3층 301호)
수강인원	20명(선착순)
수강료	4만원
강사	이 금 복(대만 보인대학 중문연구소 석사)
개강일	1990.1.4

수강접수 및 마감

수강 신청은 1989.12.27 까지 중국어문선교회 사무실에 직접 나오시거나 전화(720-4312)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수강료는 신청시에 납입하여 주시고 전화로 신청하신 분의 경우는 아래 온라인으로 송금해 주십시요.

송금 온라인 번호
수취인:중국어문선교회
국민은행:008-01-0454-178
상업은행:104-05-106251
조흥은행:325-1-062234
중소기업:002-01-0154-683
은행
우체국:010892-0027775
* 꼭 송금인의 이름을 기입하시면 감사하겠읍니다.